

[아버지학교 10주년] 인터뷰

아버지학교 전도사입니다

윤판석·이선화 집사/ 2005/ 페이지수: 2

“아버지학교가 우리 가정을 살렸어요. 아버지학교가 아니었으면 이혼을 했든지 큰 일이 벌어졌을거예요. 제가 욕하는 성질이 있어 불상사가 벌어질 뻔한 위험한 순간도 있었거든요. 아버지학교를 통해 저는 내안의 분노를 잠재우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었습니다.”

가정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했다는 윤판석 집사. 윤 집사가 아버지학교를 알게 된 것은 둘째 아들 때문이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옮겨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등교거부를 했다. 윤 집사는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만 하는 아들을 고쳐보려고 컴퓨터를 마루에 내놓기도 하고 정신병원에 데려가보기도 했지만 아들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윤 집사를 보려하지도 않았다.

나중에 들으니 아들은 윤 집사와 중 3 담임교사에게 맞은 매로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이 중 2 겨울방학 때 윤 집사는 아들의 성적에 실망해 우드 골프채가 부서지도록 매질을 했었다. 그런데 중 3때 아들의 담임이 반 아이 중 아들을 타겟으로 잡고 수학, 영어, 한문을 한 장씩 하라는 숙제를 내주고 해오지 않으면 매질을 했던 것이다. 아들은 오기로 숙제를 하지 않았고 담임이 매일 가하는 체벌은 아버지에게서 맞은 매의 상처가 남아있던 아들에게 오히려 역효과였던 것이다. 아들은 어머니 이선화 집사에게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고 까지 말했다고 한다.

벼랑 끝에 선 가정을 깨달다

아들 문제로 고민하는 윤 집사 부부가 온누리상담실에 소개받아 왔을 때 상담자는 “문제 학생에게는 문제 부모가 있다”며 아버지학교를 갈 것을 권유했다. 말단 사원에서 중소기업 이사까지 올라갈 정도로 성실히 산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윤 집사는 아들을 위해 2000년 아버지학교 서울 23기에 등록했다. 그곳에서 윤 집사는 회사밖에 모르고 달려오느라 아내와 자녀를 돌아보지 못했음을 알게 됐다.

완벽주의자에 일벌레로 살았고 남에게도 완벽을 강요했으며 칭찬에는 인색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데 익숙했던 자신을 반성하게 됐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이 얼마나 위태한 벼랑에 놓여 있었는지 알게 됐다. 아들은 수면 위의 문제였고 아내인 이선화 집사는 더욱 큰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 집사는 자신의 말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주장만 밀고 나가는 남편에게 실망해 결혼한 지 2년이 채 안됐을 때부터 이혼이란 단어를 품고 살고 있었다. 18년간 힘든 결혼생활을 오직 하나님께 아뢰며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다.

윤 집사는 아내에게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고 ‘이제까지 하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 당신을 왕비로 모시고 살겠다’고 편지를 했다.

그러나 아버지학교를 나와도 당장 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집사는 남편을 용서하고 받아들였지만 아들은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지금 잘해주는 것은 일시적인 쇼라며 이혼하고 우리끼리 살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 아들의 마음이 돌아오게 하려고 윤 집사는 노력했다.

“게임만 하는 아들 옆에 가서 ‘그거 재미있냐?’ 하고 말붙여도 아들은 ‘몰라요’하고 무뚝뚝하게 대꾸하고 무시했습니다. 갈라지는 마음을 추수리고 눈물을 머금으며 7개월을 아들 옆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가출했다. 처음엔 화가 치밀어 돌아오면 혼쫓을 내리라 생각했지만 3일이 지나자 무사히 들어오기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그런 즈음 새벽에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부산에 있으니 데려가 달라는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첫차를 타고 달려 내려갔다. 아버지에게 혼날까봐 웅크린 아들을 따듯이 감싸며 “집 나가니 좋던?”하고 물었다. 서울까지 오는 기차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평생 처음으로 마음이 담긴 긴 대화를 나눴다. 그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와 가장 친한 아들이 되었다. 요즘 군대에서 보내는 편지에는 ‘아버지를 정말 존경한다’고 써오기도 한다.

“사람은 채찍을 써서 끌고 간다고 해서 끌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서 떠받들어 주며 가면 수월한 데 그때는 몰랐었죠.”

가정의 화목과 평안을 얻다

아버지학교에서 받은 감동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윤 집사는 그 은혜와 감동을 잊지 않기 위해 스태프로 봉사하며 섬겨왔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학교를 소개하고 자비를 들여 등록해주시기도 했다. 그렇게 아버지학교로 인도한 사람이 10명이 넘는다.

“남편은 아버지학교 전도사예요. 순 예배든 어디든 아버지학교 이야기만 하고 다녀요. 남편이 변화된 것을 보면 이 땅 남성은 모두 아버지학교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학교에 다니기 전에는 다정한 남편과 아버지로서 점수가 10점도 되지 않았다고 말한 이 집사에게 지금은 어떠냐고 묻자 “내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만 적극적으로 대화해주지 않아 90점”이라고 대답한다. 옆에서 “좀 후하게 줘. 이왕이면 100점 주지”라며 웃는 윤 집사 부부를 보니 순원들이 붙여준 별명이라는 ‘닭살부부’가 정말 잘 어울리는 듯 느껴진다.

윤 집사는 아버지학교를 통해 자기 가정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었고 이제 다른 가정의 회복을 돕기 위해 아버지학교의 감동을 나누고 있다. 그는 아버지학교에서 교육받던 당시 지은 오행시를 가슴에 품고 산다.

“아무리 노력한들 가정에서 소외된 나는
버틸 수가 없는 가련한 아버지
지난날의 갈등은 배우지 않은 탓
학생되어 새로 배운 아버지학교
교차점의 내 인생 새롭게 변했네”

/ 전성희 기자 shee@onnuri.or.kr

* 출처 - 온 누 리 신 문